

[취재요청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차 1박2일 농성) 지하철 행동: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정다운	연윤
배포일자	2022.12.27.(화)	
제목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차 1박2일 농성) 지하철 행동: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인도 감옥 같은 시설과 방구석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동하여 노동하고 교육받고 함께 살기 위해 지난 1년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관련 입법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통해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끝내 장애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4. 여야가 상임위에서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1,304,401백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665,309백만원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통과한 증액안은 겨우 0.8%, 10,68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당했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의해 외면당했습니다.

📌 '23년 정부예산안 대비 국회 통과 장애인권리증액예산

- 전장연이 요구한 (국회제출) 증액예산 : 1,304,401백만원
- 국회 여야 상임위 증액예산 : 665,309백만원 (51%반영)
- 국회 통과 장애인권리 증액예산 : 10,684백만원 (0.8%반영)

5. 대한민국의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부와 정치는 제 역할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면서 '불법'을 운운하며 전장연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 보장의 국가 책무가 장애인에게 배제되어 왔음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抵抗權)"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켜야 할 국가 권력이 되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전장연과 시민들을 갈라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항권(抵抗權)이라 함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 오세훈(서울시장): "<무관용 원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무관용 원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이 됐습니다.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트집 잡기입니다.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약자성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둬야 합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절대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권리에 산과 입법이 보장 될 때까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오는 2023년 1월 2일(월)~1월 3일(화) 양일간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실시합니다.

🔑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차 1박2일 농성) 지하철 행동_제48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 일시: 2022년 1월 2일(월) 오전 8시
- 장소: 삼각지역 승강장(숙대입구 방향 1-1)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차 1박2일 농성) 지하철 행동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신년결의대회

- 일시: 2022년 1월 2일(월) 오후 2시
- 장소: 삼각지역 대합실

7.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1박2일 농성) 지하철 행동[제4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 '23년 1월 2일(월), 오전8시
- 장소 : 삼각지역(숙대입구 방향, 승강장 1-1)

[2부]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1박2일 농성) 지하철 행동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신년 결의대회

- 일시 : '23년 1월 2일(월), 오후2시~3시
- 장소 : 삼각지역 대합실

[3부]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를 위한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

- 일시 : '23년 1월 2일(월), 오후3시~오후6시
- 장소 : 삼각지역(숙대입구 방향, 1-1 승강장)

[4부]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함께 간시다" 자립생활우동가 우동